

33%) 길림성의 연간 인삼종자 생산량은 약 275톤, 연간 수요량은 약 211톤 정도가 과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通化지역의 모든 농가에서는 과육을 분리하여 팔거나 씨앗을 싣고 과육을 분리해주는 회사로 이동하여 과육을 분리하였다.

한국이 인삼의 재배, 가공, 유통분야에서 앞선다 할지라도 산양삼재배(중국명칭 임하삼)에 있어서는 중국의 길림성의 집중투자와 계획, 제약회사들의 인삼시장 진입과 제약연구로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산양삼(15년근 이상)을 특화하여 한국인삼과 차별화하려는 계획이 확실하다. 인삼의 재배와 가공기술 유통분야에 있어서도 한국인 전문가들이 길림성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재배방법이나 가공기술뿐 아니라 유통분야에 있어서도 가까운 장래에 평준화될 공산이 크다. 인삼재배 기술자와 정관장의 인삼가공 기술자가 고액의 보수를 받고 길림성에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白山시 만량진인삼시장과 通化시 청하진인삼시장이 길림성의 대표적인 인삼전문 시장으로 인삼생산물과 종자의 판매뿐 아니라 가격정보 재배기술 그리고 인삼관련 회합 등이 이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삼종자 역시 이 두 시장을 통하여 인삼경작자 또는 전국의 종자거래 상인들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종자 산출량의 약 80%가 길림성 내에서 이루어지고 약 20%는 타지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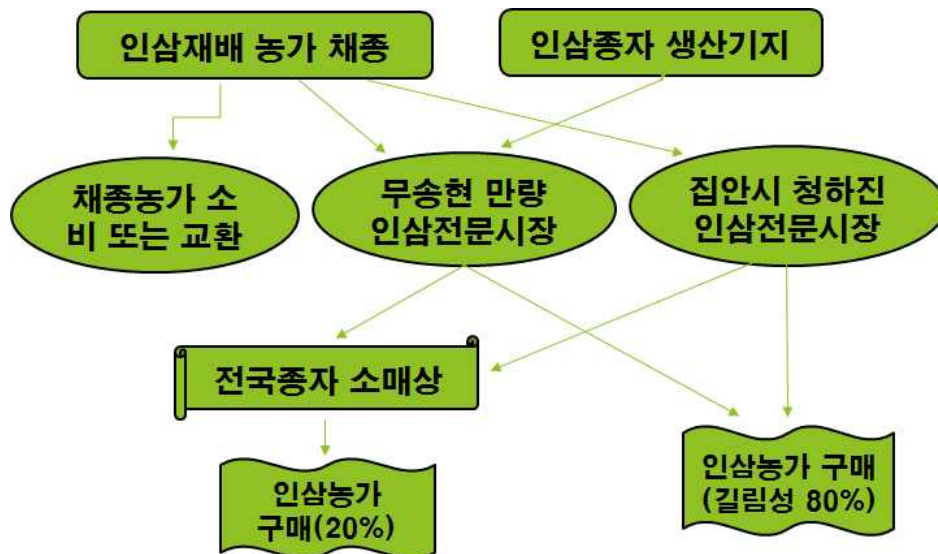


그림 1. 인삼종자의 채종과 유통과정

종자관리 조사의 표본은 2016년 동북3성의 현지출장에서 방문한 농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표 3은 조사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임하재배 2곳, 임지재배 2곳 그리고 밭 재배 6 농가를 관찰하였다. 품종은 재래종이 대부분으로 8농가였으며 고려인삼과 서양삼 재배농이 각각 한 곳이었다. 임하삼 재배 면적은 10,000ha나 되는 야산의 넓은 면적을 성 정부로부터 이용권을 사들여 합작 법인형태로 운영되고 과충 준비단계에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10년 된 임하삼을 볼 수 있었다. 밭 인삼재배는 대부분 제약회사와 계약재배이었고 흑룡강성을 제외한 길림성과 요녕성에서는 재배방식과 관계없이 토양미생물 제제를 이용하여 인삼의 건강한 생육과 수량증가를 시도하고 있었다.

인삼종자의 수확량은 10a당 밭 재배에서 136.6kg이며 임지재배는 101kg으로 수량에 있어 농가포장 간에 변이가 컸다. 종자의 판매는 재래 인삼종자의 경우 350元/kg이며 고려인삼의 씨앗